

##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 한국문인협회상임이사

# 차이와 다름의 벽 넘어서기

새벽에 습관적으로 신문을 들었는데 유난히 눈에 들어온 것은 '묻지마 살인'이란 제목의 머릿글이었다. 얼마 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서 자녀와 함께 TV를 보던 40대 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사건이었다. 공사장 일용직을 하던 범인은 사건 당일 일거리가 없자 오전부터 망치 따위의 도구들이 든 배낭을 메고 동네를 배회하다 저녁 무렵 놀이터에 앉아 술을 마셨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피의자의 동기였다. 때마침 맞은편에서 들려오는 즐거운 웃음소리에 화가 치밀었다는 것이다. 30대 초반의 그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와 너무 비교돼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저질렀다고 한다.

요즘 정부 일각에서 촉발된 화두가 소통을 넘어 공정한 사회이다. 짧은 기간 압축 성장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은 다양한 형태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복지든 무엇이던 간에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사회 전체는 집단적 분노와 적개심에 시달리게 된다. 그 속에서는 차이와 다름에 대한 이해조차도 무색하다. 논리적 공감보다는 오로지 감정적으로 옳고 그름만을 따지게 되는 까닭이다. 내 생각과 다르면 바로 적이다. 나와 다른 것은 모두 틀린 것이라고 부정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곳곳에 떠다니는 이 부정과 적개심의 실체는 바로 평상심의 해체 때문이다. 모두들 뭔가 잘못된 것이란 걸 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이 정서적 불안은 질곡의 지난 시절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다.

개인은 어떻든 역사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 험난했던 과거가 소외된 서민의 마음에 뿌리 깊은 상처를 남겨놓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쁨이나 어두운 감정 모두 어쩔 수 없는 산물인 셈이다.

한편으로 돌러보면 중산층이란 이름도 겉보기만으로는 멀쩡하다. 작은 아파트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은 물론 승용차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분노하고,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에 목소리를 높인다. 한동안 가족을 위해 정신없이 일하다가 조금 나이가 들면 어느새 집에 들어와도 혼자다. 그렇다고 아내나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도 없다. 그 사이를 비집고 자리 잡은 것이 휴대전화기다.

'항상' 이라기보다 이메일이나 정보서비스와 재미있는 오락기능 까지도 갖춰져 있기에 '함께' 라는 단어가 더 어울린다. 최근에는 기능이 훨씬 진보한 스마트폰이 나와 세상의 변화를 더욱 실감하게 한다. 전 세계에서도 스마트(Smart)열풍이 일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으로 촉발된 스마트 바람은 개인의 일상생활을 넘어 국가와 기업의 운영체계를 바꿀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분명 모바일 앱시대는 가고 웹의 시대가 도래 했지만 다양한 정보통신 관련 용어들은 언듯 이해조차 쉽지 않다.

몇 일 전 스마트폰을 구입해볼까 하여 대리점에 들렀는데 점원의 표정이 그닥 반가워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아마도 귀찮게 이것저것 귀찮게 묻기만 할 것 같은 인상이 들었는지 궁금해 하는 몇 마디를 근성으로 대답해주었다. 그리고는 친절하게 사용하시기에 불편하니 그냥 지금 써는 것이 나을 거라고 조언까지 해 주었다.

물론 그 말이 맞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섭섭했다. 처음부터 세대 차이를 짐작했기 때문이었겠지만, 새로운 세계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시도도 해 보기 전에 다름의 벽 앞에서 갇혀버리는 기분이었다.

마조(馬祖道一) 스님의 즉심시불(卽心是佛)은 한마디로 잡다한 망상과 이기심을 버리고 때 묻지 않은 고요한 마음을 일컫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동들은 마음이 일어나 생각이 움직이는 행위이다. 강물은 천만갈래로 나눠 흐르지만 결국 바다에서 모두 만나지 않은가.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개인주의적이 되면서 누구나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갖기 쉽다. 이럴 때일수록 차이와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고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

## 사 설

### 돈선거 아닌 종책선거여야 한다

선거를 흔히 '민주주의 꽃 혹은 축제'라고 화사한 수식어를 붙여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현실은 축제와는 거리가 멀다. 금권 · 관권 · 음해 등이 난무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래서 선거무용론이 고개를 쳐들기도 한다.

조계종이 곧 제15대 중앙종회의원선거를 치른다. 이달 25일 직능대표 및 비구니 종회의원을 뽑는데 이어, 28일에는 각 교구별로 직선직 종회의원을 뽑는다. 종회의원선거가 축제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종책선거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축제로 불릴 수 있다. 지난 4년의 종단 안팎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회고하고 이후 4년의 전망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때 선거는 비로소 축제가 된다. 중앙종회의원선거에서 종책을 발표하고 토론을 벌인 예는 아쉽게도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호법부 등 유관기관은 금권 등에 의한 혼탁함을 막는 것과 함께 종책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종책 발표회는 중앙 및 교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해 치를 수 있다고 본다. 종회의원이 되어 종단 운영에 참여하겠다는 스님들 또한 어떻게 활동을 하고, 무엇을 이루려는지 자료화하여 종도들 앞에 공식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종책선거로 나아갈 수 있다.

돈을 뿌리는 선거여서는 안 된다. 호법부가 선거를 앞두고 담화문을 발표해 깨끗한 선거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익명의 제보일지라도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돈 선거는 종단을 부패하게 만든다. 돈을 들여 당선되었으면 권한을 이용해 그만큼 거두려 할 것이고, 그리 되어 종단은 돈의 구렁텅이에 더욱 깊숙이 빠지고 만다. 후보자들은 당선을 목표로 출마하는 만큼 어떻게 하든 당선되려고 노력한다.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락을 좌우하는 상황에서는 준법의식이 둔감해질 수 있다. 돈 안 드는 선거 정착 여부는 팔할이 투표권자에 달렸다. 요구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한다.

### 국제선센터, 특성화되어야 한다

조계종의 국제선센터가 다음 달 15일 문을 연다. 개원에 앞서 국제선센터 주지인 현조 스님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불교 세계화의 중심도량 △서울 서남권 포교의 중심도량 △교육과 문화, 수행의 정법도량을 3대 운영 지표로 제시하고 "한국불교 정수인 간화선의 생활화 · 대중화 · 세계화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선센터는 개원하기까지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 부지 사용권을 놓고 조계사 신도회와 총무원이 갈등을 빚었으며, 종교용지로 불하받은 이후오래도록 나대지로 두어 삼보정재를 세금으로 내기도 했다. 도심 속에 웬 외국인을 위한 선센터냐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쳤던 만큼 관심과 기대가 크다.

국제선센터라는 이름에 걸맞는 운영이 요청된다. 도심의 여느 사찰과 비슷해서는 건립의 의미가 반감된다. 국제선센터도 사찰이므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귀의처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운영 지표의 하나로 '서남권 포교의 중심도량'에 착안하는 것은 국제선센터라는 이름에 담긴 특성화 지향과는 거리가 있다. 간화선의 국제화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사부대중 칼럼

안수경
고창군종합복지관 과장

# 네 잘못이 아니야

열어 놓은 창문으로 드는 맑은 바람이 약간은 싸늘하게 느껴진다. 쨍하고 쏟아지는 햇살에 느껴지는 터질 듯한 청량감이 가을을 알린다. 이제 가을이다.

지루하게 내리던 그 많던 비와 그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린 날, 가을의 문턱에서 가슴시린 아련한 느낌은 이때의 이 계절만이 주는 덤인 것 같다. 결실이 가득한 계절임에도 가을은 내게 서운함을 준다.

산에도 들녘에도 길가에서 조차도 힘들여 결실을 맺느라 누렇게 퇴색해가는 모습이 풍요로우면서도 쓸쓸하여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야 할 것만 같다. 너른 들녘을 거닐고도 싶고 가을 바다도 보고 싶다. 산길을 혼자 고즈넉하게 걸어보고도 싶은 뭔가 그냥 지나치기엔 아쉬운 계절이다. 이리저리 지인들과 나들이 약속을 하기도 하지만 실행되어 본적은 거의 없다. 아마도 길었던 추석연휴가 있어준 덕분에 가능했던 고향 들녘과 성묘나들이가 아쉽지만 나름 시간과 마음을 달래준 것이리라.

이렇듯 약간은 빛바랜 낙엽색이 나는 가을을 즐기는 나이지만 최근에는 선운사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근무하다보니 자연스레 산사를 접할 기회가 있어 화사한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선운사 계곡 옆 당단풍은 말할 것도 없고 남쪽지방에서 많이 핀다는 꽃무릇-일명 상사화 또는 석상화라고도 함-이 선운사 입구부터 도솔산 가득 무더기로 피어있어 눈이 즐겁다. 선운사에서 맞는 이른 새벽이나 저녁 무렵은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선선함으로 가슴이 꽉 차오른다. 어줍지 않게 핸드폰의 카메라를 켜고 꽃들에게 들이대기도 하지만 어림없는 짓이다. 자연이 그리 녹록하게 허락하지는 않는다.

쉽게 담을 수 없는 풍경을 차곡차곡 마음에 담으며 계곡과 산길을 따라 걷노라면 온 산이 새빨갛게 물든 모습은 정말 대단하다. 찬란하다는 표현 외에 다른 표현은 없을까? 눈부시도록 아름답다는 느낌이 이런 걸까.

가을은 풍요로움과 화려함이 가득해서 결실의 계절일 수밖에 없다. 자연스레 또 다른 미지의 세계를 지향하는 열매가 맺어지고 든든한 물질적 지원을 바탕으로 정신적 유희가 시작되는 계절이다. 주저리주저리 이렇게 읊어대면 지나친 망상일까?

그렇다고는 해도 내게 가을은 사계절 중에 가장 착해지고 싶고 순수해지고 싶은 계절이다. 누구라도 스스로가 갈수록 각박해져가고 메말라 가는 감정의 소유자라고 자각한다면 가을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본다.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영화 중에 '굿윌헌팅(Good Will Hunting)' 이 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 받은 뒤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천재 청년 윌을 치유하면서 자신도 자유로워지는 숀 맥과 이어 교수의 이야기이다.

나는 이 영화를 요양보호사 강의 때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아픔은 있게 마련이다. 그 상처받은 마음을 녹여내는 말을 나는 그 영화에서 찾았다.

"네 잘못이 아니야(It's not your fault)."

이 말은 잘잘못의 여부를 떠나 상담의 과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극치를 보여줬다. 그 누구말대로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 어디 있으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수강생들의 반응도 좋은 덕분에 나 역시도 이 영화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영화는 볼 때마다 다른 느낌을 줬고, 느낌에 따라 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이 가을, 삶이 고단하고 아프다고 느끼는 나를 위하여 그 상처를 찬찬하게 들여다봐야겠다. 그 상처를 보고 또 들여다보며, 받아들이고 감싸 안으며 살아가도록 차분하고 따뜻한 감동이 있는 성찰을 해야겠다.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을 통해 고통등 감정의 근원을 밝혀 무쳑이나 아팠던 상처를 치유할 힘을 얻을 것이다.

올 가을, 힘들고 외로운 이가 있다면 선운사를 찾을 것을 권하고 싶다. 울긋불긋한 단풍과 계곡을 수놓은 꽃무릇이 그대의 외로움을 씻어 주리라. 공활한 가을 하늘은 꽉 눌린 당신의 답답함을 뻥 뚫리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선운사의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그대를 보듬어주리라.

올 가을, 당신과 내가,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 무엇이 됐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우주의 큰 빛으로 오신 관세음보살님의 메시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빛으로 치유한다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느니라.
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이며 또한 무한한 힘을 가진 자이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는 힘이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바르고 곧게 자라게 하는 힘이며 인간들의 마음과 정신을 정화하여 건강하게 만들며 육체 또한 건강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힘이니라.
개인은 물론 가정과 나라와 지구촌의 모든 인간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주는 힘이니라.
나의 힘을 光大力이라 할 것이며 이 힘을 받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고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들에 앞장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또한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여 기쁨과 행복과 평화로움 속에서 살지어다.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자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산 자나 죽은 자나 영혼이 살아 있음은 분명하니 모든 인간들이 그것을 깨달아 산 자와 죽은 자의 모든 영혼들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여 평화로운 이 세상을 만들어야 할 지어다.
나는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든 빛이며 또한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빛이고 힘이다.
넓고 높은 깊은 마음 나와 비교할 것이 없으며 모든 인간들은 늘 항상 나와 함께하며 나와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하느니라. 사랑과 자비를 인간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빛이고 힘이니라.

※ 우주의 빛과 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현교빛치유센터 원장 김건희
예약문의 : 02)568-3778 / 010-2648-3778 (오전 9시~오후 8시)